

# 전남도, 민선7기 805개 기업 21조5000억 유치

## 2만5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 투자 유치 성과

유례없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라도가 기업 투자를 꾸준히 유치해 민선 7기 1000개 유치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805개 기업, 21조4969억원을 유치해 2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었다. 올해는 109개 기업, 2조5896억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이

끌어냈다. 특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산업의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한 성과가 눈에 띈다.

국내 대표 IT기업인 NHN엔터프라이즈(주)는 순천에 3000억원을 투자해 공공·산업 전반의 디지털 뉴딜 선도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데이터센터 세부설계를 위해 사전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착공하게 된다.

광양만권에는 이차전지 소재 분야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리튬 생산공장 등을 활발히 유치했다. 포스코와 호주 리튬 광산업체가 합작한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이 울진산단에 7600억원을 투자해 연간 4만3000t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착공했다.

포스코와 중국 화유코발트가 합작한 (주)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은 폐배터리로부터 니켈·리튬·코발트·망간 등을 추출하는 이차전지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주)엘씨에너지솔루션은 나주혁신산단에 국내 5대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완제품 제조공장을 건설할 목표로 2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남에서 성장한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인 (주)박셀바이오는 화순생물약학산단에 3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첨단 항암면역치료제를 개발·생산, 미래 글로벌 세포치료제 산업 분야를 선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하반기에도 비대면(온택트) 투자설명회를 시·군과 연계해 전략산업별로 개최하고, 기업관계자와 소규모 간담회 등도 열어 전남의 투자매

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올해 신설한 유치기업지원팀은 기업 맞춤형 밀착지원으로 투자실현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애로사항 발굴과 원스톱 처리로 기업의 원활한 증설투자를 돕게 된다. 또 전남형 뉴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등 도정 주요 프로젝트를 활용, 산업별로 치밀하게 분석해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을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이건설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삼아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발굴·유치하겠다”며 “전남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공공부문 탄소중립 박차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전남도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정수장 등 기반시설이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기초시설 내 주차장, 지붕, 유희부지, 법면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 및 사용하는 것이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했다. 22개 시·군 67개 환경기초시설 내 43만7000㎡ 면적에 1만3994kw를 태양광 등 발전시설로 설치해 연간 1만8906Mwh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으로 8012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2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전남도는 올해 6개 시·군 11개 환경기초시설 부지에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580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6일 목포 삼학도서 ‘섬 미래포럼’ 연다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사단법인 한국섬재단은 4일 “오는 6일 오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컨벤션홀(목포 삼학도)에서 ‘섬, 미래 국가발전의 동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섬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 미래 포럼은 제2회 섬의 날 국가기념일(8월8일)을 기념해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한국섬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섬, 미래 국가발전의 동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섬 주민의 삶과 자연, 문화공동체 공간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다. 목포대학교 사학과 강봉룡교수가 ‘섬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자원이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고흥군 연흥도 협동조합 최연희 사무장이 ‘가고 싶은 섬 연흥도’를, 목포MBC 김윤국장이 ‘연인이 바라보는 섬’을 발표한다.

일본 쓰쿠바대학 요시다 마사히토 교수가 ‘세계유산과 섬 일본: 일본 섬 세계유산의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박성현 교수가 ‘변화하는 섬 사회의 과제와 리질리언스(회복력)’를 발표한다.

김충남(전남도 섬해양정책과 과장), 이관홍(황해섬네트워크 대표), 최정훈(한국섬재단 홍보위원장), 김현린(전 울릉군 부군수), 김민영(한국섬학회 회장), 김철수(신안군 가고싶은 섬 기점·소악도 이장) 등이 종합토론자로 나선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 점검 김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4일 오후 도시철도 2호선 1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전남도, 귀농 창업·주택 융자금 737억 확보 ‘전국 최다’

### 농·주택 구입 저리 지원

전남도가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737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총사업비는 3543억원이다.

귀농 창업자금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전남 전입 5년 미만, 65세 이하 세대주 중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비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농지 구입,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보수 등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 최대 3억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연리 1%를 전남도가 추가로 이차보전 해준다.

또 귀농인의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구입이나 신축에 필요한 자금 최대 75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470억원을 확보해 각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8월 초까지 각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나해엔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62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농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 영농기술 교육, 정보습득 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6-12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귀농산

업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는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남으로 귀농산여촌하는 도시민이 보다 손쉽게 농산여촌에 정착해 지역의 새로운 핵심 생산인구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있다.

전남도가 다양한 지역맞춤형 귀농정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산여촌인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운영과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신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을 확보해 융자를 바라는 귀농인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귀농산여촌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 10월18일~11월1일 접수

광주시는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공립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원발굴, 홍보,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관내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관 운영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기관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시 건강정책과에 신청서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광주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사업 기획, 연구 등을 주체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